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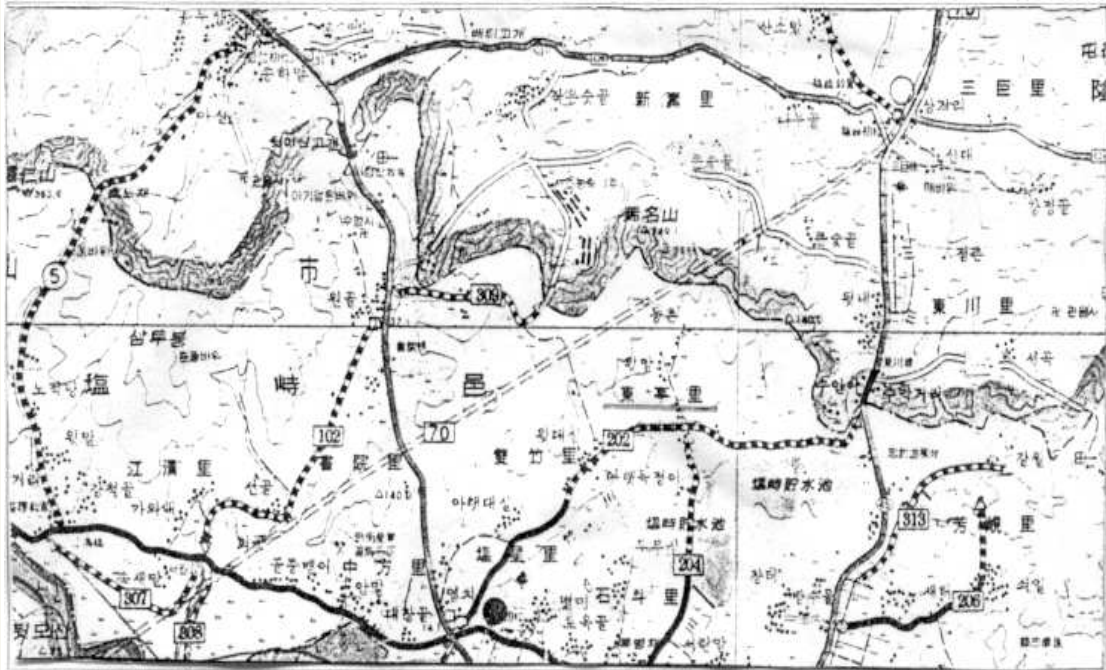
동정리·東亭里

동정리·東亭里

<구연자 : 아산시 염티읍 동정리 김 봉순씨(83세)>

동정리는 염티읍의 한 자연부락으로 독정이 또는 독정이라고 불린다. 임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54세대가 살며 그 중 8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에는 덕조당터라는 덕조당 서원이 있었던 곳으로 터만 남아 있고 석축고분이 남아 있다. 동정리는 본래 아산군 원남면의 지역으로서 큰 우물이 있으므로 독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학대리, 상독리, 하독리, 동독리를 병합하여 동정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동정리 위치도>



☒ 독정이(독정) 마을 (동정리)

동정리는 독정이, 동촌, 숲아래, 아래독정이, 학다무니라 불리는 자연부락으로 나뉜다. 그 중 독정이는 동정리의 주된 마을로 옛날에 큰 우물이 있어 독정이라 하였으며, 동정리 북쪽에는 동촌 또는 안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안씨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다. 독정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래 독정이 또는 학대리라는 마을도 있고, 동촌 남쪽에 있는 마을로 1928년 염티 저수지에 묻혀버린 학다구니라는 마을도 있었으며, 숲아래라는 저수지 부근에 숲이 많은 마을이며, 독정이 안쪽에는 염티 저수지가 있고, 마을은 길게 늘어져 있고, 염티저수지 옆길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흥미져 있다.

<조사당시 동정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독정이 마을은 위도 36-49-20, 경도 126-59-40의 지역으로 읍소재지에서 202번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도로가 중간쯤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곳이 마을의 중간 어귀이다. 마을은 북쪽으로 500m, 남쪽으로 500m 정도로 긴 형태이다.

2) 현 황

독정이의 마을 인구는 총 130명으로 남자 73명, 여자 57명이다. 또한 54가구가 살고 있는데, 87%가 농업에 종사하며, 5%는 축산업에 나머지 8%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독정이마을	130명	73명	57명

- 생 업

구 분 마을명	계	농 업	축산업	서비스업
독정이마을	100%	87%	5%	8%

농경지는 논이 17ha, 밭이 25ha이다.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으며, 병충해방제기, 그 외에 다른 농기계도 조금씩 보유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이 1개소 있을 뿐이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독정리마을	42ha	17ha	25ha

성씨별 분포는 임씨가 15%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 외에 김씨, 이씨, 안씨도 10~11%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의 연령을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임 씨	김 씨	이 씨	안 씨	최 씨	기 타
독정리마을	54호	9호	5호	6호	5호	3호	26호

- 최고령자

독정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 봉순씨로 83세이시고, 건강하신 편이다.

3) 자연경관

독정리는 앞으로는 염티저수지와 주위에는 산들이 있어, 아늑하고 그림 같은 마을이다. 북쪽에는 동촌, 안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으며, 저수지 부근에는 숲이 많은 마을도 있다. 마을 중간으로는 도로가 지나가며 도로와 그 약간 아래는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은 위·아래로 늘어진 형태로 되어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독정리 마을은 본래 아산군 원남면의 지역으로서 큰 우물이 있으므로 독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학대리, 상독리, 하독리, 동독리를 병합하여 동정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독정리 북쪽의 동촌 또는 안촌이라 불리는 마을에 안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은 이곳 동촌에서 오래전부터 터를 이루고 살아 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독정리 마을에서는 임씨들이 처음 터를 이루었다고 하며 지금 13대까지 살고 있는 것을 보아 서기 1600년경 약 400년전으로 추정되며, 오래전부터 터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6) 지 명

- 독정리 : 동정리의 주된 마을로 옛날에 큰 우물이 있었음.
- 웃말 : 독정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 동촌 : 안촌 또는 독동이라고도 하며 독정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안씨들이 살고 있음.
- 숲아래 : 염티저수지 부근에 있는 마을. 숲이 많이 있음.
- 아래독정리 : 하독리라고도 하며 독정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 학다무니 : 학대리라고도 하는 동촌 남쪽에 있는 마을로 1928년 염티저수지로 들어갔으며, 전에 학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학다무니라 함.
- 수리봉 : 독정리 뒤에 있는 산으로 샘터가 많이 남아 있으며, 성재 또는 독성산이라고도 불림.
- 덕조당터 : 웃말 뒤에 있는 덕조당의 터로 숙종때 시직 조태만이 처가인 이곳에 와서 살면서 강당으로 이 집을 짓고 조수가 중방리 미륵벌을 지나면서 어진이들이 쏟아져 난다는 토정의 말을 따라서 덕조당이라 하며, 전에는 미륵벌 위까지 조수가 들어 있음.
- 염티저수지 : 동정리에 있는 저수지로 1948년에 설치됨.
- 석축 고분군 : 동정리 뒷산에 있고, 석축 고분들이 이미 파손되고 잔형만 남아 있음.
- 무명산성 : 음봉면 신수리에 이루고 있는 무명산 정상에 축조되어 있음.

7) 전 설

十 임명제 선생의 아산군수 시절의 일화

임명제 선생의 아산군 군수로 있었을 때다. 6.25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더욱이 도로는 손수레가 왔다갔다 할 정도였다. 그가 염치에 좀 가신다고 했다. 염치 주민들은 군수가 오신다고 몹시 좋아하며, 들뜬 기분들이었다. 사람들은 군수가 오시면 도로 좀 어떻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염치에 오셨다. 그는 세삼 놀랐다.

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는 즉시 돌아와 생각한 끝에 도로를 넓히기로 하였다. 면민들은 하루 이틀씩 번갈아 가며 이 도로 사업에 나섰다. 그 대가까지 나왔다. 쪼들리는 판에 사람들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도로가 넓어져서 모두 흡족해 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매년 12월 말일에는 대동계를 실시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같이 의논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청년회에서 위친계를 하는데 상을 치를 때 젊은 사람들이 상여를 매고 서로 도와주어 일을 치르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마을에서 소개할 만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임명제라 하는 분이시다. 사실 남들이 들으면 생소한 사람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몸 바친 사람으로 그의 묘가 이 마을에 있다. 그분에 대해 소개하면 이러하다. 1911년 3월 3일 아산군 염치에서 태어나셨다. 임명제의 휘는 영상, 자는 수일, 호는 매사였다. 아버지 화자는 학식과 덕망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이 많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도와주는 성미였다. 어머니는 부사의 따님이셨다. 임명제는 이들의 장남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는 커가면서도 복의가 단정했고 남자답고 의젓하게 행동했으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크게 될 인물이라며, 칭송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는 효자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의 말속에는 효자도 결혼을 하여 아내를 얻게 되면 불효자가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한 후에도 부인과 함께 더욱더 잘 모셨다. 그는 1935년에 경성 법학 전문학교를 마치고 충청남도 행정직에 근무를 했다. 1950년에 연기군수를 지내시고 1960년에 천안 군수를 역임하시는 동안 그는 모든 일에 충실했고, 청렴결백 하였다. 늘 국민들의 입장이 되어 무엇이든 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통령 훈장까지 받으신 바가 있다. 그는 은퇴한 후에도 그의 고향에 돌아와 지방 산업 전체의 장으로 향토 개발에 심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야산에 과실 나무를 심고 이왕에 심은 것 수확이 없는 것보다 수확이 있는 과실 유실수를 심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곤 하였다. 그러시던 중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 고치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너무 서러워 말아라. 나이가 들었으니 죽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다만 아쉬운 일이 있다면 우리 향토 개발에 할 일이 많은데 다 못하고 가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1972년 6월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의 자손들은 부친을 물 좋고 공기가 좋은 염치 동정리 마을에 그를 모셨다.

10) 종교단체

마을에 있는 종교단체로는 마을 깊숙이 염치저수지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동정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신도수는 20여명에 이른다.

11) 공장현황

마을에는 큰 공장은 아니지만, 조명을 만드는 광명조명의 회사와 식품류를 생산하는 서원식품이 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즐겨 찾고 있는 충무풀장도 동정리에 있다.

12) 마을의 특성

마을에는 아직도 방앗간이 있어 가동을 하고 있으며, 독정이 마을 입구 일부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안쪽 염치 저수지를 따라 산길로 한참을 들어가면 또 다른 마을이 있어 거리가 있는 관계로 왕래가 거의 어렵고, 교통편도 매우 안좋은 편이며, 대부분이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몇 가구는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휴양지로서 충무 유원지가 있고, 충무유원

지는 아산군에서 1969년도에 개발한 최초(最初)의 휴게소(休憩所)이었다. 당시에는 온양에서 음봉소재 이충무공 묘소까지의 도로가 포장(鋪裝)되므로서 많은 현충사(顯忠祠) 참배객(參拜客)들이 이충무공 묘소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豫想)하여 온양과 이충무공 묘소와의 중간 지점(地點)과 거의 비슷한 장소에 위치한 염치저수지(鹽峙貯水池)가 포장도로변(鋪裝道路邊)이라서 아산군이 이곳에다 공중(公衆) 변소(便所)와 벤치를 설치(設置)하고 관상수(觀賞樹)를 일대(一帶)에 심어 휴식처(休息處)로서의 환경(環境)을 조성하였었다. 청주여관을 경영하던 박재학씨가 저수지를 임대 유료 낚시터와 골트 연습장 및 체력 훈련장을 비롯 놀이시설등을 설치하여 충무유원지라 하여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이기도 하다.